

# 순정이

주의 승천 대축일  
(세계 홍보의 날)  
제1독서: 사도 1, 1-11  
제2독서: 에페 1, 17-23  
복음: 마태 28, 16-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28, 20)

## 컴퓨터 시대의 복음

- 세계 홍보의날 교황담화문 -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벗들에게, 하나의 성찬 기도에서 교회는 하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당신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돌보게 하시어, 창조주 당신만을 섬기며, 모든 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성찬기도 제4양식). 남녀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고 또 하느님께 그러한 권한을 받았으므로, 평범한 하루의 일과는 대단하고도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평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활동과 일을 활용하시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며, 당신 영광을 위하여 더욱 완전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공의회와 교부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상황을 분별하고자 하였을 때에, 기술의 발전이 이미 “지구의 면모를 바꾸어 놓았고” 우주 정복에까지 이르러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사목헌장 5항 참조). 교부들은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미증유의 결과와 더불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건들의 주류와 떨어져 초연하게 서 있어야 한다거나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회와 교부들은 교회를 바로 인간의 진보 한가운데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제24차 세계 홍보의 날을 위한 성찰의 토대를 발견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이전의 상상이 한층 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대화, 이상과 열망의 전세계적인 공유, 상호 인식과 이해의 증진, 지금까지는 극복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는 형제애의 강화 등이 이 모든 가능성을 예견한 상상이었습니다(일치와 발전 181, 182항 참조). 과거의 지혜와 통찰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시대의 고유한 문화에 적응시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시대의 변천을 따라 여러 환경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선포하며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소산을 이용하여 왔습니

다”(사목헌장 58항). 나이가 적든 많은, 우리 모두 일어나 이 새로운 발전과 기술의 도전을 받아들여, 우리의 종교적 신앙과 인간 존중에 뿌리박은 도덕관을 거기에 심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투신합니다. 오늘 세계 홍보의 날을 맞이하여 “컴퓨터 시대”의 가능성들이 인간의 인간적 초월적 소명에 이바지하며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도록,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간청합니다. 바티칸에서 1990년 세계홍보의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우리 모두 일어나  
이 새로운 발전과 기술의  
도전을 받아들여  
우리의 종교적 신앙과  
인간 존중에 뿌리박은  
도덕관을 거기 심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투신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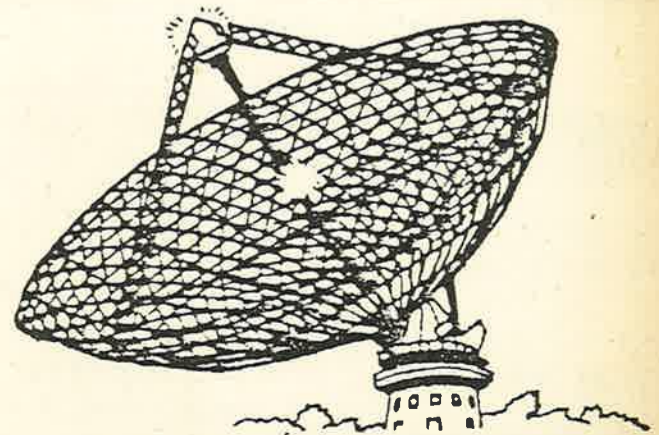
## 한국천주교회와 매스콤

현대사회에서 매스콤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한국가톨릭의 매스콤에 대한 인식이나 이용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가톨릭의 보수성 내지 홍보 부족이 언론계에서는 자주 지적되기도 했다. 한 가지 예로 떠오르는 것은 지난해 성체대회 때의 일이다. 성체대회는 84년의 한국가톨릭 2백주년 기념행사 때나 진배없이 텔레비전에 직접 중계방송된 것을 비롯 매스콤에 타종교나 개신교 쪽이 부러워할만큼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매스콤에 중사하는 사람으로 인상에 남는 것은 행사후 한 취재기자의 불평기사이다. 성체대회를 취재하는데 ‘대회홍보부서에서 취재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답변을 서로 미루고 또 응답이 불친절해 아주 애를 먹었다는 취재소감이었다. 필자에게도 가톨릭이 매스미디어 이용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을 실감케한 에피소드가 있다. 70년대 초이던가 비신자였을 때 개교 25주년을 맞았던 모신학교에서 기념행사연사로 초빙한 저명 외국신학자를 인터뷰해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본사 데스크의 지면할애응락을 받고 인터뷰 취재에 나섰으나 막상 그 저명한 외국신학자에게 무엇을 물어 볼 것인가도 모른 상태에서 인터뷰는 10여분만에 끝났고 비록 기사화는 됐지만 내용이 너무 빈약했기에 지금도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톨릭의 매스콤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여지는데 반해 매스콤의 가톨릭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한국가톨릭의 역사성과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 것이기도 하지만 60년대 이후 군사문화에 대한 가톨릭의 매태도 내지 예언자로서의 역할 컸던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5공시절 모든 매스콤 집권층의 탄압으로 정론(正論) 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몇몇 간지가 시국이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마다 김수환 추기경님 특별인터뷰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혔던 것은 6·29에 이기까지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가톨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식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교신장에도 큰 영향이 미쳤다고 각된다. 신자가 아닌 매스콤 종사자에게는 가톨릭을 취재하는 것 꽤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취재원이 접근하기가 다종교나 개신교에 비해 용이하지 않은데다 전례나 용어에 익숙하지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도 매스콤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진다. 매스콤의 역능과 일부 미디어와 종사자들 현상유지적 처신 내지 보도자세 미루어 이같은 시각을 나무랄 만은 없지만 교회매스콤을 접 기회가 없는 비신자들에게 매스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 감안한다면 매스콤을 전교의 강력한 수단으로 원용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 매스콤을 수용하고 또 접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신광연(가브리엘) 동아일보 전주주재기자

### 복음선포에 홍보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앞에 죄송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는 신앙을 길게 하는데 있어서 홍보수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날로 발전해가는 오늘날 이러한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느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홍보수단에 의해서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지붕 위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현대복음선교 45)



#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들 - 텔레홀릭

오늘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의든 타의든 텔레비전 문화(환) 속에 살고 있다. 텔레비전 때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 다도 또 그 어느 사람이나 종교 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낸다. 그리하여 그 텔레비전에 한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이 형성된다. TV는 참으로 어이없는 치관과 도덕관 윤리관을 반최 상태에서 주입시킨다. 15,000트의 방사선을 쏘아대는 TV의 성 자체가 어느정도 보고 있으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 비판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그 자체 몰입하게 만든다. TV를 바보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TV를 통해 가장 강하게 받는 극은 잘못된 섹스관이다. TV는 의 모든 면에서 성스런 섹스를 당한 오락물로 전락 시킨다. 의 모든 광고는 곧 섹스와 연결되어 있다. 섹시한 모습 섹한 언어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왜 하필 "섹섹"이란 이름의 오렌지인가? 주유소의 이름에 왜 'CX'(씨엑스) 단어를 사용할까? '은은히 와 달아요' 여자 속하나 확 못 풀어줘요? '어쩌면 이리 힘이 좋을까?' 약, 코렛 아이스크림, 화장품, ..... 섹스와 연관 안시키는데 없을 정도다. 다음, TV는 리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에 격들게 한다. 말로는 인간의 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란한 캠페인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화면과 음향을 총동원하여 돈세와 돈 버는 것 만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출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기, 배신, 절도, 강도,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치 않을 수 있음이 공공연하게 방영된다. 이성이나 합리으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환상적 차원에서 설득당한다.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얘기, 현실과는 동떨어진 드라마, 뉴스, 편집, 프로에 괜히 울고 웃고 화내고 흥분한다. 그리고 TV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생활을 주관하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명령 규제한다. 프로에 따라 모이게 하고 홀어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잠들게 한다. 혼자 울고 웃게 하고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시켜 모든 사람을 이기주의로 만든다. 만화를 보려는 손주와 장수무대를 보려는 할머니, 권투를 보려는 남편과 연속극을 보려는 아내에게 싸움을

불린다. 참으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TV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TV의 노예가 된 것이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술에 중독된 사람을 '알콜중독'이라 한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은 TV에 중독된 텔레홀릭 일 것이다. 빨리 텔레비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사랑스런 어린이들을 텔레비전 중독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공부도 밥도 성당도 내 쟁개치고 텔레비전 앞에 꼼짝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 TV 화면에서 15,000볼트의 방사선, 엑스선 감마선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그러한 엄청난 맛가를 치르면서까지 텔레비전에 충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텔레비전은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일 수도 있다. 사실

몇 달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은 생각이 깨끗이 가시는 물건이기도 하다. 일단 텔레비전은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텔레비전의 진 면목이 보인다. 텔레비전은 필요한 물건이라고 전제했을 때 볼 수 없던 면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단순히 텔레비전을 없애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텔레비전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TV는 필요없는 물건이다'라고 전제해보자는 말이다.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 것만 같은 텔레비전! 그러나 이 텔레비전이 우리의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사회에 얼마나 악독한 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텔레비전을 감상할 때, 비로소 '텔레홀릭'-TV 중독으로 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 TV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은 비뚤어질 수 밖에 없으며, 우리의 신앙마저도 깊이 없는 껍데기 신앙, 행동없이 떠들어대는 '말 뿐인 신앙'이 되고 만다. TV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꼭 유익하고 의미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프로만 골라보자.

잠깐 한정된 삶을 살다가 머나 먼 길을 떠나야 할 우리 인간들! 텔레비전이라는 바보상자 앞에 멍청히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바보상자의 노예가 된단 말인가? 텔레비전의 노예로 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야겠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 평가기준

1. 얼마나 섹스(Sex)가 포함되어 있는가?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
2. 폭력적인 프로가 아닌가? - 거친 말, 행동, 음향, 내용에 오락성 폭력이 스며있지 않는가? 사실은 TV 자체가 15,000볼트의 방사선, 엑스선, 감마선이 나오는 폭력물이다. 절대 가까이에서 보면 안된다.
3. 어떤 고정관념을 심어 주고 있지는 않는가? 예: 전라도 사투리=식모의 말, 학생=데모하는 사람, 유부녀=저질 여인, 경찰=못 믿을 사람..... 등의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가?
4.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 주는가? 아니면 '재미있다'는 말만 되새길 것도 비판할 것도 없는 프로그램은 아닌가?
5.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즉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가? 말이 아니라, 주장으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정서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가?
6. 의도적으로 인간을 어디로라도 몰고 가려 하지 않는가? 인간을 획일적인 로봇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 유신당이 살길이다. 광주 폭도, 3당 합당의 효용성.....
7. 올바른 도덕관 가치관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예: 비정상적인 사랑의 합리화 비 도덕적 삶의 합법화.....



## 숲정이 산책



너도 나와 같이...

## 치명자산 성지개발 모듬바자회

연 사흘동안 가톨릭 센타 안이 온통 시끌시끌했었다. 성지개발 모듬을 위한 바자회가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가톨릭 센타는 모두 사랑의 열기, 사람 열기로 폭발 직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려운 교구살림, 더우기 치명자산 성지개발 공사가 힘겹고 많은 난관에 부딪친 이 때에 여성연합회가 주최한 성지개발을 위한 모듬바자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다. 어떻게 보면 치명자산 성지를 위한 열성들이 수그러들고 공사비도 태부족으로 걱정만 늘고 있었는데, 교구 여성연합회의 이 도움은

교구의 살림뿐 아니라 각 본당 신자들이 간에도 일치의 끈이 되는 활력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종류의 상인 37코



너, 음식 8코너, 음료수 코너 등 다양한 참여였다. 여성연합회 임원(회장-최경숙·글라나)들의 노고도 무척 컸지만 가난한 본당인 상관같은 작은 식구의 공동체에서까지 적극 협력한 보탬의 열매는 크다. 순 이익금 1200여만 원이 모아지기까지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와 사건도 많다. 음료수 코너에서는 난생처음으로 팀(?)이라는 것도 받아 보았다는 재미있는 뒷 이야기도 있다. 별미로 등장한 콩보리밥 판매가 이색적이었고 교구의 성지개발사업에 동참해준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자금 2천만원 동원 가능한분

1 차 전화상담 요망

장애인 자활의 집

성 가 원

TEL. (02) 401-0117

FAX. (02) 402-4526

담당자 :

무장 신 해 식 (미카엘)

물전시판매대리점모집

도시 감각의 패션 구두

**브 랑 누 아**

김 순 희 (미카엘라)

전주지점 (오거리)

☎ 6-5043

**장수 양어장 직판**

★향 어★

(회·포) 떠드림)

매장: 전주농협슈퍼 내

육 태 구 (토 마)

백 진 희 (슬비아)

그라스도의 발자취와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발현지를 따라서...

**성지순례전문회사**

(주) 삼희관광전주지점

위치: 전주전신전화국 옆

전화: 87-5532 (대)

담당: 황 찬 규 (아오스님)

**초록 피아노 학원**

베스틴 전문

초보자 환영

박 양 숙 (미카엘라)

이 종 승 (미 카 엘)

전주시 상동 동산국교 옆

☎ 32 - 8400, 32 - 8568

주식회사

**현대주방전주전시장**

영업용 종합주방기구 주문제작

품 질 보 증

하 성 균 (오섭)

보전주 전향국 옆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1

☎ 74-6357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뱀 디또

☎ 84-2628

**금잔디양품점**

남·여메리야스 양말, 고급란제리

숙녀의류, 약세사리, 선물용양품일체

송 재 영 (아고보)

유 길 주 (모니카)

경원동 동문사거리 축협도지구 앞

☎ 87-6979, 자택 74-0370

전화·국변경·안내

**백 운 전 자**

방송시설, 비디오촬영 전문

백 정 수 (리 노)

이 순 남 (테레사)

전주시민약국 옆

☎ 252-0231

**거성 컴퓨터 학원**

이 상 구 (프란치스코)

이 유 라 (비비아나)

군산시 내동동 주공 2단지 내

☎ 61-3040

**성원인테리어**

조립식선반·목재·철재

주니어가구·수족관

서 원 식 (아고바)

북부시점 내

☎ 78-1941

지난번 휴업으로 인하여 여러분께 폐를 입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원모집 : 주부, 남, 여

**全州畫廊**

한국화·양화·고서화매매

병풍·액자·수예 (전시표고전문)

한 택 현 (마르첼리노)

위치: 도정영 백번집 옆

☎ 85-2220

어린이의 독서교육에 대해 근래에 와서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서교육이다.

독서는 그 대상을 혹은 내용을 소화하고 생활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요즘 흥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힐 것인가 하는 것이 부모들의 큰 관심사일 것이다.

다음은 교과과정을 참작한 학년별 독서지도 사항과 그 대상물이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학년 안에서 정서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성장을 확인해주고 보람을 주어서 독서에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보살핌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편집부 -

# 『어린이 독서 지도 이렇게 한다』

학년	지 도 사 항	대 상 물
국1년	부호, 글자 기본문형 이해. 선악 판단.	그림. 경험설명, 동화, 우화
국2년	이야기의 줄거리 이해. 표현, 행동, 장면 생각. 또렷한 발음.	그림일기, 만화. 생활기록, 우화, 동화 편지.
국3년	글 속의 어휘 이해. 내용 알고 전하기, 묵독. 학급 문고 이용.	감상문, 관찰기록. 동화, 동시, 설화.
국4년	교훈적인 글이 가장 적합한 시기임. 글쓴이의 의도, 주제, 요점 잡기. 느낌, 의견 교환, 사전활용.	어록, 전기. 기행문. 소년소녀 소설.
국5년	사상적인 글이 공급되어야 하는 시기. 비판적으로 읽기, 주제 파악. 감상낭독.	기사문. 시조, 소설.
국6년	문학독서를 시켜야 하는 시기. 양서 가리기. 글의 의미, 주제적, 비판적으로 읽기.	5학년것 숙달. 기행문등 각종 형식의 글.

## 요심이 (877) 김병오

나는 가장 값비싼 책이다. 나는 칼라로 찍은 책이란다.

나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누드사진이 많은 책이다. 나는 픽션 이야기가 많은...

누가 오는가 보다.

어험.

어서 오십시오. 우리끼리까불어죄송합니다.

## 井邑성당 (시기동) - 정주지역의 전교지

옛부터 우물의 물맛이 좋아 井邑이었다.

남으로 내장산의 승경을 바라보고 있는 정읍은 절경도 절경이려니와 백제시대부터 歌詞의 고향이며 왕조말에는 동학혁명의 기치를 들었던 고장이어서 우리에겐 더욱더 친밀한 지역이 되어 있다.

이곳의 정읍교회(시기동성당)는 현재의 성당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 지역 전교의 터전이었다.

1882년 2월 전주교우 金淳文이 내장면신성리(현재 井州市 내장동)로 이사한후 1년만에 金贊京, 裴西鎮, 金明寶등 교우들이 이사회와 27명의 교우로 1889년 3월, 첫공소를 치루게 됐다. 이때부터 신성리 공소시대가 시작됐다.

당시 金滿梨峴(배재)에 있던 요셉 張新부가 판공을 봤고 그후 金州의尹신부, 다음에 淳昌의 데사에 韓신부가 1901년까지 전교에 임했다.

1901년 4월 金아오스딩(承淵)신부가 신성리 초대본당신부로 부임한다.



金신부는 초가집을 사서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고 다시 성당터 1천2백평을 사두었다. 1903년 4월 20일 孟신부(高山 되재본당주임)가 2대주임으로 부임하여 곧바로 성당신축에 착수했다. 이곳의 성당은 기와8간과 4간의 사제관 6간의 성당사랑으로 되어 있었다.

1930년 5월 6일 부임한 3대 白신부(R. Peshel)는 본당을 읍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정주읍 상리에 양철집을 매입했다. 이를 근거로 水城리 明德동 목조(1936년), 淸水동 일산가옥(1944년)으로 본당을 옮겨 지금의 기틀을 마련했다.

1954년 10대주임 金아오스딩(永鎰)신부가 부임, 지금의 연와제 1백20평의 성당과 사제관을 세우고 대지 1천8백평을 확보했

다. 그리고 新坪리와 登川리에 강당을, 九良리에 공소집을 매입했다. 그해에 성당구내에 성모상을, 竹林리 공소 강당을 세웠다. 그해 12월에는 신성리의 구성당을 팔아 回龍동공소 강당을 세웠다.

“옛부터 물맛이 좋아 井邑이라 부른 고장...”



## 교구소식

1. 교구사제총회: 6월7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2. 견진: 중앙성당 6월3일 오전10시30분 미사
3. 축! 오현택 신부님 은경축 무주성당 일시-6월6일(전11시)
4. 작은 자매의집 축성식: 6월6일(오후2시)
5. 문규현 신부님 제2심 결심공판: 참석하실 분은 28일 아침 6시에 가톨릭센터에 버스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 전국언론인회 정기총회 및 피정: 천호피정의 집 5월26일~27일
7. 용머리 성당 본당신축기금을 위한 바자회: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장소-용머리 천주교회 6월7일(목)~6월10일(일)까지
8. 제6회 전주교구 M·E 가족모임: 일시-1990년 6월 6일(수) 9시-5시30분 장소-전주해성중·고등학교 강당(윤호관)
9. 성모의 기사회: 6월2일(토) 10시 효자동 천주교회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가공식품」

가공식품을 살 때는 식품첨가물을 꼭 확인하십시오.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든 음식은 가급적 먹지 말고, 첨가물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은 절대 사지 않도록 합시다.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최영자(헬레나)  
☎6-6951  
동서관동로 신탁은행 앞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김의자  
탁상·회분대·혼례용가구맞춤전문  
서스태피노(옥봉)  
한안나(은순)  
☎77-1747

8차 성지 순례단출발  
6.26~7.13일(17박18일)  
비엔나·베니스·아제사·로마·바티칸  
이스라엘·이집트·스위스·루르드·파리  
**전일해외여행사**  
☎6-6666~8  
조선(인도미)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 앞·민정당사 옆  
☎86-2715

주단·침구·모시·삼베  
깨끗한복·각종이불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84-7294

**우리전투**  
박성환(조가리나)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 옆)  
☎85-8848

기름·연탄·가스보일러  
판매·시공·상담  
**남양열기사**  
박대건 안드레아  
전 레지나  
☎4-0006  
전주시 서노송동 흥국생명뒷편

**꿈란불치병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신경통  
박장춘(블라치도)·임혜선(에스텔)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주부사원 수시 모집)  
인후 2단지 금성교회앞  
☎(사)251-0848, (자)82-3271

꽃·분재·관엽·란·수족관·그린인테리어  
목각·화분소매·인공폭포·조경  
**자연미생활관**  
대표 김봉열(요셉)  
김정남(마리아)  
이리시 남중동 1가 259-4  
(한일은행 사거리 정미빌리 맞은편)  
전시장 (0653) 52-5954

프로페셔널 오디오 —

- 방송설비전문
- C.D 판매
- 음향기기판매
- 방송주변기기

**롯데매니아**  
**全北代理店**

관동사거리,  
구 전신전화국 건너편  
김원준(야고버)  
☎87-7874, 7875

**일본명상**

인간은 본래 완성된 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매일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항상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목숨은 흐르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는 흙탕물로 변화될 것이다.

시몬느 베이유

**명동피부과의원**

# 갓 영세한 대녀에게

사들의소리

엘리사벳! ..늘 세례를 받은 내게 먼저 축하를 보내며 몇년 전이 대모도 벽간 마음에 한 없이 눈물을 흘렸음을 상기 했다. 화려하고, 환희에 들뜨고 설레임 등은 결혼식과 비교가 안되는 예식이었지. 그러나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맨날 무지개빛 같은 날이 아니고 한 사람의 아내요, 아랫사람이며, 어머니이기도 해야 하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들임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의 생활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완덕을 위해 쉬임없이 걸어야 함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리라 결혼생활도 일어난만에 이혼율이 높듯 신앙생활도 대개 그때가 고비임을 미리 귀뜸해 주고 싶구나. 오년넘긴 결혼생활이 탄탄해지듯 신앙생활도 그쯤되면 냉담하기가 쉽지 않단다.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이따금 반짝하는 기쁨들이 있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의 길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따금 찬 수전으로 이마를 닦아 주고 메마른 입에 물도 적셔주고 그래서 다시 힘차게 그 길을 오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싶구나. 결혼하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기 그지없는 어머니의 맘처럼 대모의 마음도 지금 그러하구나.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인의 보약 처

방전을 적어보낸다면 그것은 기도와 성경읽기 그리고 봉사 생활을 하면 영혼이 날로날로 살이 쫄 것. 확신하며 이만 줄이려 한다. 주의 평화가 항상 너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부활절야에 대모가. 배 형신(로사리아)/호성동 성당

인생관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몫을 하리라 생각과 함께 논의를 불리며 많은 박수를 보냈다. 우리 주위에 지금 그 아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목숨을 이어 가면

## “감사하는 삶”

어제는 국민학생인 아이들의 교내 체육대회에 구경갔다가 참으로 기특한 아이를 보았다. 2학년 아이들의 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기에 딸아이의 뛰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앞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 뛰는 귀여운 모습들을 보고 흐뭇해 하고 있는데 손살같이 달리는 대열과는 점점 멀어지며 혼자 뛰어오는(?) 아이가 있었다. 소아마비를 앓았는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리가 질뚱거리는데도 조그마한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 지나가버린 텅빈 선을 따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리 달려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모습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인간을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선 주위사람들의 보살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 내지

서도 고통을 뛰어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혼자서 일어설 수는 없지만 열려진 창을 통해 대자연의 감상을 수 있는 두눈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데레사씨! 신체적인 그 모든걸 잃어버렸지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베드로씨! 2달동안이나 계속되는 장마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드리는 어느 여인을 향해 한 신자가 “매일 비가 와서 짜증나 죽었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도 감사하냐?”고 묻자 그 여인이 대답하길 “만약 이 비가 2달동안 나눠서 오지않고 한꺼번에 쏟아졌다면 지금 당신이 나는 어떻게 됐겠소?”라고 대답하더라는 어느 글을 음미해 보며..... 내 자신 ‘빠스카의 신비’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머리숙여 봅시다. 전 희순(루시아)/화산성당

## 알고봅시다

어린이를 위한 ‘좋은 영화상영’을 아래와 같이 상영합니다.  
일시: 6월9일(토) 오후5시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3층 강당  
회비: 500원

“에 마 논”  
대상: 고·대·일반      일시: 6월11일(월) 오후7시  
장소: 가톨릭센터 3층강당      회비: 1,000원

## 천주교 방송 프로그램 안내

(기독교 방송 1314KHZ(매주 일요일) 밤11시~11시30분)

「평화가 있는 이 밤에.....」 우리 주위 각계 각층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는 이 시간에 교회자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원고지 4~5매(편지지 한장반) 분량의 글을 보내 주시면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 교구청 홍보국. Tel 85-0041~3)

- 6월 방송 주제: 농촌 교회
- 3일: 농촌교회의 애로 사항
  - 10일: 농촌의 자녀 교육
  - 17일: 농촌의 문화시설
  - 24일: 농촌교회에 바란다.
-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주제 방송 10일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 가톨릭복음성가

이 성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신심을 깊일 수 있는 내용으로 680여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바오로말수도회, 조영호 수사 역음/이종철 신부 감수  
성바오로출판사/1990년 2월 20일 발행/비닐양장  
국판/752면/3,000원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축, 예수승천 덕진 동물원에서 10시30분 야외미사.  
1. 전주ME가족모임: 6월6일 해성중·고강당 오전9시30분 입장.  
2. 첫영성체반 입학식: 29일 오후5시 부모님동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알뜰시장(현물물나눔): 6월3일 공식미사후.  
4. 인보성체수녀원방문: 6월14일, 신축순30명 접수하세요. 회비 10,000원. 5. 형제들의 소록도방문 접수: 6월10일예정 회비 20,000원.  
모임: 구역반회장 모임-6월1일 오전10시30분 사목회분과 모임-6월1일 오후8시 성령기도회-31일 7시30분. 7. 금주청소 구역: 중노1가8, 9반 다음주청소구역-중노1가 10, 11반  
3. 축 결혼: 6월3일 12시 신랑-김중만, 신부-최명애(마리아). 9. 임마누엘회원 공소 신축현금-50,000원 감사합니다.  
지난주 봉헌금: 922,720원 □ 교무금: 594,00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박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예정단체: 오늘 저녁미사후. 2. 삼회: 오늘 오후2시. 3. 레지오다리에 옥의 행사: 29일 덕진 황농. 4. 성모의 밤: 31일 저녁 7:30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초봉헌 꽃봉헌: 개인 및 단체.  
5. 어머니 성가대 릴레이: 6월1일 오전11:30. 6. 성체강복: 6월2일 저녁미사후. 7. 사목회: 6월3일 저녁미사후. 8. 대견회: 6월3일 공식미사후. 9. 밀알회: 6월3일 공식미사후. 10. 견진: 6월17일 견진 신청을 아직 못하신분은 속히 신청 바랍니다.  
축 결혼: 6월3일 12시 신랑-박중호(요셉)군, 신부-강영애(유리안나)양. 금주전례: 해설-황만균 □신일균 □윤귀자  
봉헌-신일균씨 부부  
성모의 밤 전례해설: 황만균 □오장수 □정강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오장수 □장주호 □장명애  
봉헌-장주호씨 부부  
□지난주 봉헌금: 512,820원 □교무금: 786,9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오늘은 예수 승천 대축일입니다. : 행사안내: 미사-10:30 12:00-집성, 체육대회-1:30분부터.  
성모의 밤: 31일(목) 저녁8시 1부-미사, 2부-행사, 초준비하세요.  
올레야: 30일(수)저녁미사후.  
우리마: 다음주 공식미사후.  
사목회: 2일(토)저녁미사후.  
교무금 납부의 날: 매일 첫주, 다음주.  
성경읽기: 사무엘상 11장-20장.  
금주전례: 해설-김경재 독서①양대환 □장희옥  
봉헌-정환호, 이종열씨 부부  
차주해설: 유만순 독서①여정진 □서준자  
봉헌-여정진, 남현준씨 부부  
□지난주 봉헌금: 199,05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오늘은 예수승천 대축일!(6월은 예수 성심 성월!)  
1. 쇠의: ①우리마-오늘오후2시 □청년회-6월7일(목) 오후7시 30분.

- 2. 알릴: ①경노잔치-6월3일공식미사후, 60세이상어른들을 초대합니다. ②예비자교리-6월10일부터(성인반)공식미사후, (학생반)매주일 오전9시30분, 예비자인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③초등부어린이 남전주지구 체육대회-6월6일(수)해성학교 운동장(오전9시부터) ④중고등부3개 본당(서학, 평화, 상관) 친선 체육대회-6월6일(수) 오전9시부터(장소미정) ⑤ 견진반으로 본 사무실에 신청바람, 중고생 견진교리-6월2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8시, 일요일 오후3시. \* 수녀님피정-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지난주 봉헌금: 412,800원 □교무금: 361,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111 사목회장 오직환
- ※ 오늘은 예수승천 대축일 및 세계총도의 날입니다.  
1. 본당신축기금을 위한 바자회-신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용머리천주교회 일시-6월7일(목)~6월10일(일)까지 4일간.  
2. 전자오르간 기증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익명기증)  
3. 예비자교리 안내: 매주 수요일-오후8시(직장인), 금요일-10시 미사후(주부반), 토요일-5시(학생반).  
4. 성모의 밤 행사: 31일(목) 밤8시. (편지·시·성모님께 드리는 글)모집  
5. 사목회: 공식미사후. 6. 요셉회: 공식미사후.  
7. 사라회: 공식미사후. 8. 청소봉사: 서안산동1가 서편 사제관·수녀원 신축 현금 신일총액: 21,674,000원  
입금: 10,720,000원  
□지난주 봉헌금: 385,670원 □교무금: 497,000원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중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오늘은 주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 성전부수헌금 바랍.  
1. 올레야: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마리아 보리아: 오늘 오후2시.  
3. 윤보두네신부님 선종75주기 추모미사: 29일(화) 저녁7시30분. \* 가정방문: 29일(목) 저녁 1반, 30일-중남2반.  
4. 성모의 밤 행사: 31일(목) 저녁7시30분(화분, 꽃, 초, 예물봉헌 있음).  
5. 병자방문: 6월1일(금). 6. 성가정회: 1일(금) 오전11시.  
7. 재속클라라 형제회: 다음주오후1시30분. 8. 초등부교리교사 모집: 영세후1년이상인 젊은 남·여(사무실에 문의) 9. 청년도모성지순례: 6월3일 오전8시 출발(여산~화산나바위)-사무실 접수. \* 금주보수비헌금액: 632,000원  
\* 금주보수비 신일액: 없음. \* 현재모금총액: 139,669,159원  
\* 현재신일총액: 213,131,399원 □지난주 봉헌금: 1,437,720원
-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 ※ 서석구(사도요한) 신부님의 본당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성모의 밤 행사: 31일(목) 오후8시. (본당에서 꽃과 초를 판매합니다)  
2. 사목회: 6월2일(토) 오후8시.  
3.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①이창욱 □노시연.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①신정균 □김혜자.  
□지난주 봉헌금: 86,760원 □교무금: 90,00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 결축! 예수승천 대축일: 야외미사-완역상뫼산(10시30분 성당에서 집결) 1부-미사, 2부-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대상-전신자. \* 성령세미나: 28일(월)~6월2일(토), 참가비-2,000원(28일(월)새벽미사 없음). \* 사순절대제 저금통 봉헌: 302개중 98개 봉헌되었음.  
1. 사목회: 2일(토) 오후5시. 2. 유아세례: 2일, 오후3시 \* 신청서와 대부모선정해서 제출바람. 3. 구역장 릴레이: 다음주 공식미사후.  
4. 금주전례: 문치구 복사-김광택, 함윤권 봉헌-김광환 부부. 차주전례: 함문권 복사-최준, 서영상 봉헌-박해근 부부.  
□지난주 봉헌금: 441,470원 □교무금: 408,000원  
□신축현금: 115,000원
-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 효자동**
- ※ 결축, 주의 승천 대축일(오늘)!! 행사①제1부: 야외미사-장소-효문여자 중학교, 시간10:30 ②제2부: 나눔의 시간(점심) ③제3부-운동회 및 오락 \* 06시와 후7시 미사(성당에서 있음).  
1. 모임안내: ①우리마-30(수) 10:30(교육관) ②까리파스 회-(금) 오후2시 ③사목회-6월8일 오후8시. 2. 예비자교리 시간: ①일 10:30 ②화 10:30 ③목 후7:30 ④토 후6시(중고생) \* 예비자 한 사람을 인도합니다. 3. 수요성서교실: ① 오후2시 ②후7:30. 4. 성모기사회: 첫토 오전10시 \* 미사 10:30. 5. 어린이 첫영성체(예비자포함)교리: 화~금: 오후5시(교육관) 대상3~6년. 6. 청소년담당: 삼천주공2단지, 광진아파트, 서부거성. 7. 매월 마지막 주는 교무금 납부 주일.  
\* 건축을 위한 2차헌금: 214,120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봉헌금: 833,260원 □교무금: 1,095,000원
-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사무실 86-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87-0711 사목회장 김홍두
- ※ 축! 예수승천  
1. 9일기도 중입니다.  
2. 반회합 방문일정: 29(화) 14:00 여매, 20:30 만철리. 30(수) 10:00 호암. 31(목) 14:00 부지개. 6/1(금) 14:00 우진1, 2  
3. 성모의 밤: 31(목) 저녁8시 미사부터. 4. 여성분과회: 1일(금) 어머니미사후.  
5. 안심공소미사: 1(금) 오후8:00. 6. 성령세미나: 6월5일(화), 7일(수) 서울 오순절 봉사회.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영근 □김현자  
기도①박종일 □안길자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광택 □문옥선  
기도①조용준 □문경자  
□지난주 봉헌금: 487,550원 □교무금: 1,217,000원